

전반적인 수요 감소 · 공급과잉 여전

가격 상승예상, 수출 · 고부가가치제품 늘려야

97년 IMF와 함께 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OPP, CPP, PET필름 업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해 한정된 시장 나눠먹기에 불과했던 필름 업계는 올해는 경기가 호전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상반기를 지낸 현재 이를 기대할 수 있는 큰 변수는 없는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다.

OPP필름

OPP필름 시장은 설비캡과가 15만톤인 반면 98년 실 수요는 평균 12만톤이하에 그치고 있어 분명한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다.

98년은 97년보다는 경기가 되살아 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해 내수전체 수요가 6만톤을 밑돌아 97년보다 성장이 5~10%가량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OPP필름 용도별 내수량(98년 기준) (단위:톤/년)

용도	공급량
그라비아용	30,000
테이프	9,600
라미용	7,200
앨범용	3,000
담배용	1,200
기타	7,200
합계	58,200

94년부터 거의 성장의 정체를 보이던 OPP필름은 97년 대립산업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국내업체들이 수출에 더욱 주력해야하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98년 OPP필름의 국내 총 생산은 생산캡과인 15만톤 중 114,000톤을 실생산 했으며 그중 내수로 6만톤 이하를, 나머지는 수출로 공급했다. 용도별 공급량을 보면 라미용(일반, 무광 OPP)이 10% 7,200톤, 식품포장용(그라비아인쇄용)이 55% 30,000톤, 테이프용이 15%로 9,600톤, 문구·앨범용이 20%로 3,000톤, 기타(담배용 등)이 10%로 7,200톤을 공급했다.

OPP필름의 수요는 그간 식품포장용과 합지용이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40%이상의 비중을 점해왔던 식품포장용의 경우 98년 대규모 식품업체의 부도에 타격을 입어 그 양이 크게 감소했다. 라미용은 OPP필름의 10%이상을 점유해 왔으나 98년에는 20%에 가까운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미용의 이러한 감소 현상은 지난해 환경문제 급격한 대두로 인해 쇼핑백, 브로슈어, 광고지 등의 수요가 크게 줄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앨범용과 테이프용의 경우가 대형 문구업체의 부도여파로 감소한 반면 의류 및 문구, 펜시 등 일반포장용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생산량을 보면 캡과시터용을 포함 5대

[표 2] 국내 OPP 필름 생산업체 및 업체별 공급량(98년 기준)

(단위:톤/년)

업 체	생 산 능 력	리 인 수	공 급 량
대림산업	25,000	2	20,500 (수출-10,700, 내수-9,800)
삼영화학공업	34,600	5	27,600 (수출-16,560, 내수-11,040)
서 통	27,500	4	25,200 (수출-12,000, 내수-13,200)
울 촌 화 학	26,000	3	168,00 (수출-3,600, 내수-13,200)
화승인더스트리	30,000	3	24,200 (수출-14,520, 내수-9,680)

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삼영화학공업의 경우 98년 28,000톤을 공급, (이중 캡파스타용은 제외) 수출로 16,800톤 내수로 11,200톤을 공급했다. 삼영화학은 가격이 여의치 않아 수출시장 진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중국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부분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운반비용의 부담이 상승해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에 중동지역, 이스라엘, 베트남 등으로의 신규진출을 위해 준비중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삼영화학은 시장의 추세에 따라 베이스필름 위주에서 페이퍼라미네이팅, 필 필름 등의 기능성 필름위주로의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필리핀 현지4라인을 제외, 국내 총 4대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통은 지난해 25,000톤을 공급, 내수로 13,200톤, 수출로 12,000톤을 공급했다.

미쓰비시 1라인, 브르크너 2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울촌화학은 약 16,800톤을 공급, 내수(자가사용 7,200톤 포함)로 13,200톤, 수출로 3,600톤을 판매했다. 울촌화학의 경우 지난해 면류의 소비증가로 식품포장용이 10%미만 신장한 반면 전체적인 시장 경향과 같이 라미용과

테이프용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 고정적인 자가 사용 물량이 있고 수출에 매리트가 없다고 판단한 울촌화학은 80%가량을 내수로 공급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수출시장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있다. 울촌화학은 신규업체인 대림산업의 시장참여로 소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대리점이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나 자사의 판매에는 예년과 비교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한편 PP한계를 보완한 내열성 OPP의 개발로 PET대체효과를 기대했으나 가격경쟁력이 없어 일부 농심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부도설로 몸살을 치렀던 화승인더스트리는 98년 24,200톤을 공급, 그중 14,520톤을 수출로, 9,680톤을 내수로 공급했다. 그중 인쇄용 8,040톤, 테이프용 월 600톤, 증착용 720톤, 앨범용 240톤, 복합용(담배 등) 3600톤, 라미용 11,000톤을 공급했다.

후발업체인 대림산업은 원료메이커라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96년 6월 만톤 가동으로 생산을 시작했다. 그후 1년동안은 제품 안정을 위해 수출을 피해 오다 9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했다. 98년은 총 20,500톤을 생산 그

중 내수로 9,800톤, 수출로 10,700톤을 공급했다. 용도별 공급량을 보면 테이프가 3,600톤, 포장용이 3,000톤, 인쇄용이 2,400톤이다. 수출은 중국지역이 대부분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남아 등지로 일부 공급 하고 있다. 98년 타 경쟁사와 달리 화이트오팩제품의 합지용 판매가 증가한 대림산업은 의류용, 약세사리, 스티커 등 소규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한편 연광화학의 CPP필름 설비를 구입 CPP생산을 고려해 보기도 한 대림은 특수필름 분야로의 개발을 시도했으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올해중으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OPP필름으로 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대림은 후발업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품질에 더욱 주력하고 유저의 가공조건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97년과 98년에 걸쳐 많은 포장업체들이 파산하거나 파산위기를 넘겨 업체가 정리되고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포장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업체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어 올 한해도 큰 변화없이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기울고 있다.

특히 빙과류판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게 나타나고 소비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 것으로보아 하반기에도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업체들은 내수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나 가격이 맞지않아 잉여물량 처리에 대한 업계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레진가격은 포장제조업체들을 더욱 조여 오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강한 대응을 하고 있어, 국제원유가 인상 등 국제시장 흐름에 따라 원료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원료업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인 물동량이 줄어든 시점에서 대형 할인점이 늘어나고 대용량 판매 경쟁이 눈에띄어 상대적으로 포장재량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수입과자의 양이 늘어남과 동시에 제과 가격이 대폭 인상됨으로 당분간은 소비심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는 한부분에 치우치지 보다는 신규수요 창출에 접근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미개발된 용도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PP필름

CPP필름시장은 기존업체인 삼민화학공업, 서통, 유상공업, 삼영화학, 성일화학, 삼진화학을 비롯해 신규업체인 기린화학의 체제가 97년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업체의 진출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수요중에서 수출비중이 10%미만으로 내수시장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CPP필름은 그 적용 용도가 식품포장용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어 수요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반면 캡퍼는 과잉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CPP필름업체는 자가소비량이 큰 삼민화학, 유상공업, 성일화학, 기린화학, 삼진화학과 순수 필름업체인 서통과 삼영화학공업으로 업체를 크게 구분할 수 있다.

97년 하반기 증설과 함께 1만5천톤의 캡퍼를 갖춘 삼민화학공업은 지난해 8,000톤을 생산, 생산량의 10%정도만을 자가사용하고 나머지는 대형 식품업체에 공급했다.

3대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유상공업은 지난해 약 4,200톤을 생산 그중 2,940톤은 내수로, 1,260톤은 수출로 공급했다. 그러나 상반기중 다이렉트 수출 물량이 늘어 상반기 전체물량이

〔표 3〕 OPP필름업체별 생산캡파 및 공급량(98년 기준) (단위:톤/년)

업 세	생산능력	라인 수	공급량
삼진화학공업	10,500	2	8,000
서 통	7,200	2	5,500
유 상 공업	7,200	3	4,200
기 린 화 학	3,600	1	1,580
성 일 화 학	7,200	2	5,400
삼 영 화 학	6,600	1	3,500

(주)삼진화학은 800톤의 설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100% 자가사용 하고 있다.

약간 증가했다. 내열성 CPP, 일반 CPP, 증착 CPP를 생산, 제과, 라면, 식품과 증착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유상은 전체 생산에서 레토르트 11%, 증착 52%, 일반 37%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식품용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한 유상은 올해안으로 비식품용으로서의 적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다.

공압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성일화학은 7,200톤의 캡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5,400톤을 생산 그중 3,240톤은 내수로 2,160톤은 수출로 공급했다. 또한 용도별로는 합지용이 4,200톤, 의류기·식빵용이 1,200톤이 공급됐다. 성일은 폴리에틸렌을 CPP와 배합하여 부드러운 기능을 추가시킨 필름을 일회용 주사기 등 의리기포장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제과 및 빵포장외에도 절임류, 단무지뚜껑 등으로도 일부 공급하고 있다. 전체사업중 그라비아 인쇄 60%, 필름 30%, 농업용·기타 10%인 성일화학은 지난해 310억의 매출을 기록해 예년에 비해 30%의 매출을 신장하기도 했다.

96년 1월 신규로 시장에 참여한 기린화학은 3,600톤의 설비를 확보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기린화학은 지난해 1,580톤을 생산 내수로 1,340톤(자가사용 포함), 수출로 240톤을 공급했다.

용도별로는 증착용 320톤, 단면열접착용 842톤, 양면열접착용 294톤, 일반CPP 57톤, 로우슬립용 60톤, 화이트 2톤을 공급했다.

삼영화학공업은 지난해 연간 3,500톤을 공급 1라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0%이상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삼영은 98년 중국, 동남아 등 기존 수출시장외에도 유럽 및 구미로의 수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삼영은 지난해 방담CPP 필름인 MCF필름을 개발, 콩나물에 적용하여 유통기간을 늘리고 신선도를 보존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아이스크림 포장용으로 화이트 CPP를 개발했는데 이 제품은 가격은 비싸지만 냉동보관시 내한성이 약한 OPP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해태제과 전체품과 빙그레 일부제품에 적용되었으며 타사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100% 자가소비하고 있는 삼진화학은 97년도 하반기 800톤 규모의 1라인을 도입하는 동시에 노후설비인 2라인을 해외에 매각함으로써 생산 능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PP필름은 OPP보다 공정상 저가에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CPP필름은 업체별로 자기수요 의존도가 크고 신규업체 시장진입도 기대하기 어려워 앞으로 판매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배의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공급과잉현상은 지속될 것이므로 가능성이 부여된 제품과 부가가치를 높은 제품을 개발해야하며 용도확대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PET 필름

세계 폴리에스터필름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PET필름수출국인 우리나라는 98년 심각한 수출부진과 국내수요 감소, 재고량 증가로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

으며 이로인해 가격하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해야만 했다.

98년 PET필름의 국내 총 생산은 약 25,4000톤으로 그중 내수가 113,000톤, 수출이 141,000톤으로 집계됐다.

PET필름의 용도를 크게 나누면 마그네틱용, 포장용, 콘덴서용, 전기·절연, 라미네이션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포장용이 수급에 눈에 띄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포장용 PET필름시장은 97년 고합,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신규3사의 시장참여로 악화되기 시작하여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현상이 포장용 이외의 용도로 까지 그 영향이 미쳐 전체 PET필름시장을 혼란스럽게 이끌고 있다.

특히 97년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가격하락 현상은 계속적으로 추락해 현재 최저가를 밀고 있는 수준이며 이것은 지난 10년간을 비교해 볼때 가장 최저가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폴리에스터 칩과 기초원재료인 TPA, EG시장도 폴리에스터의 수요침체에 영향으로 공급과잉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기초원재료업체들이 살아남기위한 대책으로 정기보수와 가동률을 줄임으로써 TPA, EG, PX 기초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PET필름 가격의 인상에 대

한 제조업체들의 의견이 강하게 모아지고 있다.

PET필름 최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SKC는 지난 해 약 10만톤을 생산, 내수로 약 50%(자가 2000톤 포함)를 수출로 나머지를 공급했다.

현재 1개의 파이롯트 라인을 포함 13개의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SKC는 지난해 마그네틱용으로 43,000톤, 포장용 27,000톤, 콘덴서 6,000톤, 후도물량(전기·절연·라미네이션 등) 20,000톤을 공급했다.

SKC는 최근 PET병용 라벨을 개발, 적용을 위한 마케팅을 시작했다. PET라벨을 적용할 경우 병과의 단일재질이라는 장점으로 재활용시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SKC는 기존 PET라벨의 단점을 보완, 물성면에서도 크게 향상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SKC는 세계적인 필름메이커로서 과감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97년 10월 착공한 미국조지아공장(5만톤)이 지난 달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오는 10월 3호기까지 가동되면 생산량이 미쓰비시와 같은 15만톤 수준으로 늘어나 세계적인 메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된다.

(주)새한은 총 8대의 설비를 보유하고 지난해 약 8만톤을 생산 내수로 36,000톤 수출로 44,000톤을 공급했다.

수출지역은 유럽과 미주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내수물량중에는 새한미디어의 자가사용분이 포함됐다.

98년 새한은 경쟁사인 SKC와 차별화된 고투명필름인 초투명필름과 안전필름, 투명도가 0.2~0.3인 헤이즈 필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새한은 지난 달 14일 필름, 부직포, 원사 부문 자산을 일본 도레이사로부터 5억달러 규모

【표 4】 PET필름 생산량 및 내수·수출 현황(98년 기준)(단위:톤/년)

업체	생산	내수	수출
SKC	98,000	49,000 (자가 2,000톤)	49,000
새한	80,000	36,000톤	44,000
코오롱	50,000	30,000	20,000
효성	12,000	4,200	7,800
고합	10,800	2,160	8,640
화승인더스트리	9,600	2,880	6,720



외자유치를 했고 올 가을쯤 합작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합작회사의 도레이와 새한의 지분은 6:4이고 도레이와 협력, 원가경쟁력, 기술력 및 세계적인 판매망으로 필름, 원사, 부직포시장을 공략할 계획으로 있다.

총 6만톤의 생산캡파를 보유하고 있는 (주)코오롱은 지난 해 약 5만톤을 생산 그중 내수로 3만톤, 수출로 2만톤을 공급했다.

용도별로는 비디오 2만톤, 포장용 13,000톤, 라미네스 · 전기 · 절연을 포함한 산업용이 17,000톤이다.

코오롱은 공급과잉에 대응, 인라인 코팅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접착력을 강화하고, 고투명성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수한 슬립성과 대전방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발업체인 고훈은 포장용 2라인 24,000톤의 캡파를 확보하고 있으나 1라인은 가동중단된 상태다. 지난 해 10,800톤을 생산, 내수로 2,160톤, 수출로 8,640톤을 공급했으며 용도별로는 9,720톤을 포장용으로 나머지 1,080톤을 산업용 및 기타용도로 공급했다.

후발업체중에서 원료메이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어려움을 겪었던 고훈은 하반기 중단상태인 1라인을 비포장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동할 계획으로 있다.

OPP필름전문메이커인 화승인더스트리는 사실상 9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개시했으나 경쟁사들이 원료메이커인 반면 순수 필름메이커로서의 단점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판매가 부진해 지난해 공급량이 9,600톤을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내수로 2,880톤, 수출로 6,720톤을 공급했으며 용도별 생산을 보면 일반포장용 7,200톤, 증착용으로 2,400톤이다.

후발업체인데다 순수필름업체로서 앞으로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화승인더스트리는 수출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가격이 턱없이 하락한 상태이고 동남아시아시장이 내수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앞으로 품종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보완 품종다양화에 주력하고 기술력을 보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효성은 지난해 후발 3사중에서 가장 호황을 누렸다. 지난해 상반기는 좀 저조한 편이었지만 하반기 물량이 늘어 년 12,000톤을 판매했으며 그중 내수로 35%, 수출로 65%를 공급했다.

용도별로는 단연 포장용이 70%로 많고, 산업용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98년 업체들의 생산량에서 보면 내수시장의 감소와 공급과잉 상태임을 분명히 알수 있다.

PET필름업계는 극도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이라는 문제점을 떠안고 있어 업계가 공존공생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7~8월경은 PET필름의 비수기이므로 9~10월경이면 수요가 늘고 일부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 업계는 지난해보다 업체의 가동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급발란스를 위해 업체들은 과잉생산을 자제하고 수출시장에 주력하여야 하며 또한 기능성 제품개발이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선하기자